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재원

새누리당 군위군·의성군·청송군

배포일시

2013. 10. 24 (목)

보도일시

배포 후 즉시 보도 가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대한민국 국회 의원회관 419 호
전화 02)784-2820, 팩스 02)788-0153 담당 : 김원호 비서관 (010-9384-3651)

농어촌공사, 작년 매출 0원 자본잠식된 회사에

해외농장 개발하라고 72억 대출, 모럴해저드의 극치

아무 문제없다고 주장했으나 규정 위반 드러나, 공모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지난 14일 주요 언론 보도¹⁾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선봉 부장검사)는 러시아에서 옥수수과 콩 등에 대한 가공시설을 짓겠다고 사업계획을 농어촌공사에 제출하여 2010년 10월에 72억원을 대출받은 후 국내 부동산 개발 사업에 전용한 혐의로 이모(38) 씨와 고모(49) 씨를 구속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의 이에 대한 질의에, 농어촌공사는 대출사고와 관련하여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김재원 의원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농어촌공사가 규정을 위반하면서 거액의 부실 대출을 집행한 것이 드러나, 공사 임직원이 부실대출 사건에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1) '해외농업투자' 명목 75억 대출받아 국내부동산 투자

연합뉴스 기사전송 2013-10-14 09:18

얼빠진 농어촌공사... 72억 詐欺 당하고도 몰라

조선일보 박상기 기자 입력 : 2013.10.14 03:11 | 수정 : 2013.10.14 11:35

'해외농업개발' 속여 75억원 받아낸 일당 구속

뉴스1 원문 기사전송 2013-10-14 14:59

실사까지 하고도...수십 억 사기당한 농어촌공사

노컷뉴스 원문 기사전송 2013-10-14 16:13

신용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고 국민 혈세 72억원을 대출해 줘, 규정 위반

72억을 대출받은 코리아통상의 신용평가등급은 ‘CCC0’인데, 한국기업데이터는 이 등급을 ‘현재시점에서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투기적임’으로 설명하고 있다. 농어촌공사의 “해외농업개발자금 융자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공사는 사업자의 신용상태나 계약조건 등을 검토하고 융자심의회 심의까지 거치도록 되어있는데, 농어촌공사가 이 업체를 선정하기까지 어떤 심사를 했는지 의문이다.

72억원을 대출받은 코리아통상은 자본금 2억원에 누적 적자로 자본이 전액 잠식되었고, 심지어 2012년 매출은 제로인 회사였다. 매년 1억원 이상 손실이 나는 회사로 밝혀졌다. 종업원은 6인으로 나와 있지만 인건비가 7천만원에 불과하여 사실상 1인 회사로 의심된다. 신용평가등급도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에서는 차입이 불가능한 회사여서 작년말 차입금 5억원도 개인으로부터의 빌린 돈이다. 자산도 차입금 5억원보다 작다.

3박 5일 현지실사와 전문가의 법률 검토에도 현지법인 지분 보유 실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분기별 실적 점검도 제대로 안 해, 72억 융자금 전용 방조

농어촌공사는 “코리아통상이 러시아 현지에 (유)아그로아무르를 2009년 1월에 설립하여 임차농지에 옥수수, 콩 등의 곡물생산 확대를 위해 농기계 구입, 저장·가공·건조 시설 설치를 위해 융자사업비를 신청, 융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2012년 8월에 작성된 실사보고서에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코리아통상이 현지법인에 70% 지분을 가지고 해외농장을 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07월 코리아통상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2011년 이전에 이미 코리아통상이 3.3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코리아통상의 재무상태표에는 2.7억원의 재고자산 외 특별한 자산이 없고 자산총계도 4.6억원에 불과하여, 3.3억원을 해외법인에 출자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법률검토 및 현지실사과정에서 아그로아무르의 농장이 전대차계약 상의 목적물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였지만, 코리아통상과 아그로아무르의 관계에 대해서는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코리아통상은 융자금 외에도 작년 4사분기와 올해 1사분기 2차례로 나누어 총 31억원을 현지법인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농어촌공사에 자료를 제출하였지만 추가투자는 전혀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융자금 72억원을 올해 3월말까지 전액 집행하기로 하였고, 장비 외의 토지 및 시설은 융자금 집행 후 2개월 이내에 집행하기로 하였으나,

현지에서 집행된 융자금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계획 상 융자금 72억원 중 48억원을 토지와 시설투자에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역시 토지임차비용은 융자금 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위반하였다.

이처럼 농어촌공사가 규정에 따라 분기별로 사업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였더라면 올해 초에 이상 징후를 발견하여 대출금 유용을 막을 수 있었는데, 농어촌공사가 규정에 따른 사후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 농어촌공사는 현재까지도 융자금 72억원의 사용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둑질을 한 사람이 문제이지만, 허술한 관리로 도둑질하도록 유혹하는 사람이 더 나쁘다.

대외적으로 당당한 농어촌공사, 내부적으로는 관리 부실

농어촌공사는 대출 사기 사건이 발생한 후에도 공사의 부실한 융자처 선정 및 융자금 집행 절차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10월 14일 언론에서 부실 대출 문제를 지적하자 바로 그날 담보물의 담보가치가 충분하여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없다는 정정보도문을 사장 명의로 청구하는 당당한 자세를 보였다.

김재원 의원은 “매출이 전혀 없고 자본금이 2억원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전액 잠식된 회사, 러시아 현지법인이 자회사인지도 불명확한 회사에 해외농업 개발하라고 선뜻 72억원을 대출한 것은 아무리 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농어촌공사 해외농업개발사업의 관리 실태를 전면 재점검하여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끝.

붙임. <2012년 7월 코리아통상이 농어촌공사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중 일부>

8. 자금조달 및 용자금 소요

단위 : 백만원

구분		2011년 (실적)	2012년 3/4분기 - 2013년 1/4분기		2014년
자본금	국내사 출자금	330	1,000	330	330
	해외파트너 출자금	52.1	1,546.8	209.9	330
	소 계	382.1	2,546.8	539.9	660
융자금	병기금(정부융자)	-	5,942.4	1,269.5	-
	민간융자	-	-	-	-
	소 계	-	5,942.4	1,269.5	-
합 계		382.1	8,489.2	1,799.4	660

구분		2012 3사분기			2012 4사분기			2013 1 사분기			2013 2사분기			합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용 자 금	장비 관계	-	-	-	567.7	142.6	322.1	224.4	920.6	154.6	-	-	-	2,352
	토지·시설 관 계	-	2,400	2,450	-	-	-	-	-	-	-	-	-	4,850
	소 계		2,400	2,450	567.7	142.6	322.1	224.4	920.6	154.6	-	-	-	7,202